

1. 최근 수출 개선에도 수입이 부진한 배경

(조사국 국제무역팀)

1.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특성상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 패턴과 달리 수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이후 수입통관수입 흐름을 성질별로 보면 원자재기여율 68%와 자본재22%가 크게 부진하였는데, 원자재는 주로 단가 하락에, 자본재·소비재는 물량 감소에 주로 기인하였다.

2. [경기적 요인: 내수 회복 지연] 최근의 수입 감소는 먼저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와 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과 재화소비는 금년 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자본재반도체장비와 소비재승용차수입도 함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3. [구조적 요인: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약화] 최근 수입 감소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약화된 데도 기인한다. 2018년 이후 전기전자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국산중간재/(국산+수입중간재))이 상승하고 2020년 이후에는 수출이 반도체·자동차·기계류 등 수출의 수입유발률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

4. [업종별 특이요인] ①반도체, ②항공기 및 ③신산업의 특이요인도 수입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①먼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에도 반도체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부진한데, 이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과거와 달리 점유율 확대보다 수익성 제고 노력에 집중하면서 설비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②또한 항공기 수입이 보잉社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운송장비 수입이 감소하였다. ③2020년 이후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중심으로 對미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자본재 수입 부진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소비가 물가상승을 둔화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투자여력 확대 등으로 회복되면서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수입증가 속도는 우리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제고, 해외생산 확대를 감안할 때 수출 증가세에 비해서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